

제125회

7월 9일



- ... 본회가 주최한 제 ... ○
- ... 125회 발명교실이 지 ... ○
- ... 난 7월 9일 발명장려 ... ○
- ... 관 연구실에서 개최 ... ○
- ... 되었다. 매월 둘째 ... ○
- ... 토요일 오후 1시 30 ... ○
- ... 분에 개최되는 발명 ... ○
- ... 교실은 이 달에도 1 ... ○
- ... 백여명이 참석하여 ... ○
- ... 성황을 이루었다. ... ○
- ... 이날 발명교실에 ... ○
- ... 서는 아이디어뱅크 ... ○

양측개방도어장치 발명가

아이디어뱅크그룹 박병기 실장

구두담이에서 일약 세계적인 발명가로 발돋움한 아이디어뱅크 그룹 박병기 개발실장. 아직 젊은 나이임에도 그가 겪은 숱한 고난은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발명에 투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있다.

박실장은 국민학교를 졸업한 후 목욕탕 종업원, 공원, 과일과 야채 행상, 구두담이를 전전하는 등 불우한 유년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손재주

가 뛰어났던 박실장은 과일행상을 하면서도 접는 패작을 발명하는 실력을 발휘하였다. 이는 물론 박실장 삶의 도구인 빈패작 처리를 위한 목적이었고, 불편함을 해소해 보려는 안간힘의 결과였다.

그런 박실장이었기에 양측개방도어장치의 개발은 이미 예견되어 있던 일이기도 했다.

『2년전부터 이 양측개방도어장치의 개발을 위해서 야채도매업도 집사람에게 넘겼습니다.』

모든 살림을 부인에게 떠넘긴후 발명에 전념한 결과 양측개방도어장치를 개발하게 되었고, 박실장은 자신의

발명품을 선보이기 위해 스위스의 제네바로 날아갔다.

'94 제네바국제발명전시회에 출품된 작품은 모두 수준급이었고 출품작의 수도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상을 받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입상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금상과 WIPO(세계지적재산권 기구) 사무총장상 수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믿기지 않더군요. 무엇보다 국내가 아닌 세계전시회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저로 하여금 흥분하게 만들었

발명교실

성공사례 등 발표

- ... 그룹 박병기 개발실 ...○
- ... 장의 발명성공사례 ...○
- ... 발표와 새생각회 강 ...○
- ... 신목희장의 발명의 ...○
- ... 발상기법에 대한 강 ...○
- ... 의에 이어 김영길 변 ...○
- ... 리사의 산업재산권 ...○
- ... 제도 해설 등의 강의 ...○
- ... 가 있었다. 발명기의 ...○
- ... 성공사례를 간추려 ...○
- ... 소개한다. ...○
- ... <柳泰洙 記> ...○



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에서 로얄티를 받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양측개방도어장치의 활용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냉장고를 비롯해서 장농, 창문 등 열고 닫는 문이라면 어떤 종류의 것이라도 이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일반 가정에서는 특히 냉장고를 배치할 때 '열리지 않는 쪽을 벽에 붙여야 했기 때문에 다른 가구와 조화를 이룰 수도' 없었고 윈손잡이는 불편함을 그대로 감수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 박실장의 이 양측개방도어장치를 쓰면 윈손잡이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가구배치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좁은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는 등 수많은 편리함을 주게 된 것이다.

이렇듯 편리함을 주는 홀

륭한 발명품이지만 박실장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상품시킬 수가 없었다.

수많은 발명품이 사장화되듯이 박실장의 이 양측개방도어장치도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화라는 길을 걸을 뻔 하였다.

『큰 상을 받았지만 막막했습니다. 양측개방도어장치를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공장을 차려야 하는데 제게는 그럴만한 자본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상을 받는 것 이상의 큰 기쁨이 박실장에게 돌아왔는데 그것은 바로 삼성이라는 대기업으로부터의 상품화와 제품판매 제의.

제품화와 판매를 맡아 최소한의 마진을 제외한 이익금을 박실장에게 지급기로 한 것.

양측개방도어장치의 상품화와 판매를 맡겠다고 나선

삼성물산에서의 제품평가도 매우 높게 나와서 벌써부터 30여개국, 1백여개 업체로부터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단일품목으로 세계를 석권할 수 있는 매우 드문 상품’이라는 평가를 내려 주더군요.』

이런 놀라운 평가 덕분에 국내를 포함해서 세계 50여개국에 특허를 출원하였고 오는 10월부터 완제품 판매도 시작되는 등 박실장의 양측개방도어장치는 날개를 달고 비상을 준비중이다.

독지가의 도움으로 2평 남짓한 사무실을 무료로 임대받아 아이디어뱅크그룹이라는 회사를 만든 박실장은 앞으로 쓰레기와 환경관련 분야의 발명을 하고 싶다고 소망했다.

<♣>